

TFT-LCD, 성장단계는 다 지났다?

KISDI, 대형제품 공급과잉 논란 ... 타이완에서 국내기업 견제 속셈

TFT-LCD가 2003년 하반기 공급과잉을 겪으면서 불황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원(KISDI) 신성문 주임연구원은 최근 <대형 TFT-LCD 시장 공급과잉 논란> 보고서를 통해 200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패널 가격이 2003년부터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보합 및 상승세로 지속되자 2003년 하반기 TFT-LCD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제시했다.

LCD산업은 통상 크리스탈 사이클이라 불리는 30-36개월 주기로 경기변동을 나타내는데 200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호황국면이 과연 언제부터 불황기로 접어드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타이완기업들이 이미 5세대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국내 LG필립스와 삼성SDI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고 타이완 5개 기업의 5세대 생산설비 가동이 하반기 중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만간 공급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스플레이리서치는 생산공정이 3.5세대에서 5세대로 전환되면 효율성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타나나는 반면, 수요는 CDT 대체수요와 TV 신수요를 중심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폭증하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타이완 광학산업기술협회(PIDA)는 2003년 전세계 대형 TFT-LCD 수요량이 8500만대, 실제 공급량은 9500만대로 예상되기 때문에 평균 11.7%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TFT-LCD 공급과잉률 전망(2003) (단위: %)

전 망	구 분	1Q	2Q	3Q	4Q
낙관적	동양증권	4.2	-5.9	-0.5	0.1
	동원증권	-0.1	1.9	-0.3	1.7
중립적	IDC	-1.7	1.3	2.0	2.7
	세종증권	2.8	6.6	8.2	8.4
비관적	PIDA	5.2	27.9	14.3	6.2

† 공급과잉률=초과공급예상치/공급량예상치
자료) KISDI

반면, 국내 시장전문가 및 기업들은 2003년 하반기에도 약 5% 이하의 공급과잉을 보이며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5세대 생산라인은 4세대와는 달라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해도 정상 수준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급능력에 대한 이론적 전망과 실제 생산에는 차이가 난다는 의견이다. 또 5세대 전략 생산모델은 주로 17인치 이상의 대형 모니터용과 TV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모니터 시장에서 주력 품목이 17인치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만큼 실제 생산량 증가율은 당초 기대치 2.5-2.7배에서 1.5-2배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타이완기업들의 투자계획이 3-4개월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4/4분기 완공 예정이었던 CMO 및 Quanta의 5세대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GDR(글로벌 주식예탁증서) 발행계획이 연기되는 등 당초 2003년 타이완의 5세대 등에서 마더클래스(8세대 유리기판) 증가계획 물량인 월 13만대 중 46%가 연기된 상태이다. GDR 발행신청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타이완

의 생산설비 투자 진행은 최소 3-4개월 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고 2003년 하반기로 계획된 물량 확대는 2004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문가들은 5세대 생산설비 가동에서 국내기업에 밀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이완기업들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를 견제하고 동시에 M&A 등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기 위해 공급과잉설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성문 연구원은 “LCD산업이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은 시점의 문제일 뿐 그동안의ダイナミック한 성장단계에서 이제는 고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몇몇 거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투자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들은 M&A나 시장퇴출을 당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19>